

2023-CR-02

작은연구 좋은서울 23-02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재장소화 과정 분석

김나현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재장소화 과정 분석



연구책임

김나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이 연구를 하는 이유	1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_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5
4_보고서 구성	7
02 드라마로 본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도시공간	8
1_드라마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	8
2_드라마 속 공간의 역할	11
3_공간과 장소, 그리고 재장소화	12
03 현실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도시공간	13
1_심층 면담 개요	13
2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	16
3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자유 제약	20
04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간 인식 변화	23
1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가 도시공간 재인식에 미친 영향	23
2_임신과 출산 후 공간 선택 변화	29
05 재장소화 과정 분석	35
1_장소화 성격 변화	35
2_임신과 출산 후 재장소화	37

06 정책 제언: 그들을 돕는 방법	44
1_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44
2_보행 일상권에 기반한 물리적 개선	47
3_주 양육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행정적 개선	53
07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0



표 목차

[표 1-1] 2021년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신혼부부 수 및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순위	3
[표 1-2] 2021년 서울특별시 내 2018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동반한 가구의 유형별 비율	5
[표 3-1] 심층 면담 개요	14
[표 3-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15
[표 3-3] 연구 참여자의 거주 특성	15
[표 5-1] 재장소화 주요 장소	3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그림 1-2] 근거이론 분석 과정	6
[그림 3-1]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	16
[그림 4-1] 연구 참여자가 들고 다니는 아기 짐	24
[그림 4-2] 인도의 불편한 점	26
[그림 4-3] 연구대상지 내 초등학교 학구도	29
[그림 4-4]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와 심층 면담 진행지	31
[그림 4-5] 심층 면담 진행지 사진	32
[그림 5-1] 시기별 재장소화 성격	36
[그림 5-2] 동네 그리기 결과	41
[그림 6-1]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제안	45
[그림 6-2] 물리적 개선 방안 제안	48
[그림 6-3] 인도 개선 예시	49
[그림 6-4] 유아차 주차구역 설치 예시	49
[그림 6-5]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대관사업 예시	52
[그림 6-6] 개방수유실 설치 예시	52
[그림 6-7] 흡연실 설치 예시	53
[그림 6-8] 행정적 개선 방안 제안	54
[그림 7-1] 재장소화 과정 요약	57

01. 이 연구를 하는 이유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3년 2분기 현재, 전국 합계출산율이 0.70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인 0.53이다(통계청, 2023).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제는 출산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고, 출산을 원하지만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언뜻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유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두 이유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이 바탕에 있다. 출산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출산으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며, 다른 일로 얻는 편익이 출산으로 얻는 편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그중에서도 집값이 꼽힌다.

한편 서울시 전출입 인구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고, 4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30대 젊은 부부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전성제 외, 2016).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아기를 낳고 살기 어려워 경기·인천 등 외곽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성 또한 저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젊은 가족의 유출이 지속된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즉 서울 내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거나 주거 욕구를 실현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청년기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임신과 출산 후에는 서울 밖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결국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주거 욕구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서울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에 주거 욕구는 달

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은 임신기부터 그런 변화를 일차적으로 겪게 된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 가정에서 주 양육자가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여성이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시공간 재인식 과정을 분석하면 당사자들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을 양육 친화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와 그럼에도 서울 내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내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가 도시공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도시공간 재인식이 주거 선택 및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시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시공간이 왜 양육 친화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양육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임신부와 산모를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임신부와 산모의 행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내에서 신혼부부와 출생아 수가 많지만, 합계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강서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통계와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강서구의 신혼부부 수는 2021년 13,974쌍으로 서울시에서 송파구(14,829쌍)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출생아 수는 3,006명으로 마찬가지로 송파구(3,4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0.617로, 당시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인 0.626보다 낮았다. 이는 강서구 내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음과 동시에 아이를 낳을 신혼부부는 다른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서구 내에서도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가양동과 등촌동 일대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제한하였다.

[표 1-1] 2021년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신혼부부 수 및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순위

순위	신혼부부 수(쌍)		출생아 수(명)		합계출산율	
1	송파구	14,829	송파구	3,469	강동구	0.797
2	강서구	13,974	강서구	3,006	성동구	0.764
3	강동구	11,920	강동구	2,810	구로구	0.737
4	영등포구	10,587	영등포구	2,402	영등포구	0.713
5	은평구	9,977	구로구	2,229	노원구	0.701
6	구로구	9,914	노원구	2,225	서초구	0.666
7	노원구	9,749	강남구	2,204	용산구	0.664
8	종량구	8,908	서초구	2,163	동대문구	0.660
9	성북구	8,498	은평구	2,076	성북구	0.656
10	마포구	8,411	마포구	1,959	종량구	0.650
11	강남구	8,360	성북구	1,939	양천구	0.645
12	동작구	7,960	성동구	1,833	서대문구	0.635
13	서초구	7,835	동작구	1,831	중구	0.634
14	양천구	7,711	양천구	1,827	송파구	0.623
15	성동구	7,595	종량구	1,825	강서구	0.617
16	동대문구	6,852	관악구	1,707	금천구	0.612
17	광진구	6,720	동대문구	1,585	은평구	0.604
18	서대문구	6,093	광진구	1,484	동작구	0.602
19	도봉구	5,424	서대문구	1,426	마포구	0.587
20	용산구	5,353	용산구	1,234	도봉구	0.579
21	금천구	5,140	도봉구	1,136	강북구	0.541
22	강북구	4,858	금천구	1,012	종로구	0.531
23	관악구	4,699	강북구	994	광진구	0.525
24	중구	2,877	중구	627	강남구	0.523
25	종로구	2,240	종로구	528	관악구	0.437

자료: 신혼부부통계, 인구동향조사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다음 단계를 걸쳐 진행된다. 우선 육아와 출산, 양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드라마를 분석하여 해당 드라마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로 인해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시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의 재장소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으며, 드라마 분석 결과는 이후 심층 면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 대상 드라마로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며느라기2...ing’와 ‘산후조리원’, ‘82년생 김지영’을 선정했다. ‘며느라기2...ing’은 임신 중 겪는 여러 변화를 보여주며,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겪는 경험을, ‘82년생 김지영’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의 삶을 그렸다.

이후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그 변화로 인해 재장소화를 겪었는지 분석한다. 이때 연구 참여자는 2020년 이후로 임신이나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대에 거주 중인 성인 여성으로 모집한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임신과 출산을 너무 오래전에 경험한 사람은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임신과 출산을 기준으로 시기를 제한하였다. 특히 임신기와 출산기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 장소연구를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험도 많이 변화되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을 기점으로 2020년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심층 면담은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반복적 비교를 통해 근거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도시공간 재인식 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어떤 변화로 인해 그들에게 의미 있던 장소가 의미 없어졌는지, 의미 없던 장소가 의미 있게 됐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평소에 이용하는 공간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그 공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네 그리기와 집 그리기, 생활패턴 그리기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로 가장 시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폭넓게 제안하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정책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출산한 자에게는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특정인에게 그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주변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서울시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을 통해 양육 친화적으로 변모하여 모든 양육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고민한다.

3_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한다.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함께 연구 주제에 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면담을 종료한다.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과정을 탐구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중심 현상과 관련된 맥락과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전영국, 2017). 심층 면담은 우선 연구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지위를 얻어 신뢰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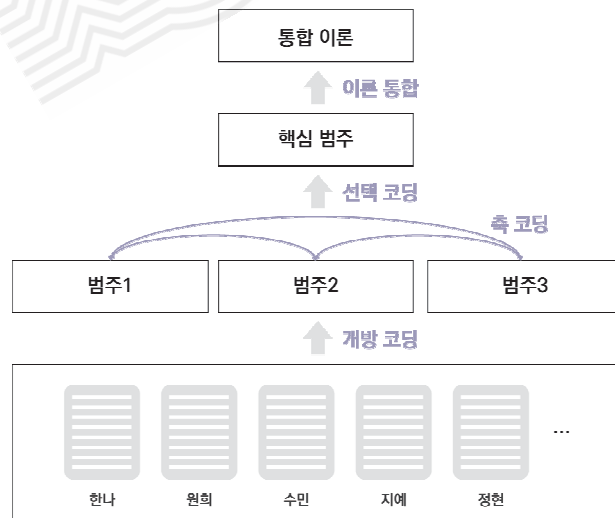
[표 1-2] 2021년 서울특별시 내 2018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동반한 가구의 유형별 비율
(단위: %)

주택 유형		점유 유형	
아파트	60.07	전세	51.87
다세대주택·연립주택	24.64	자가	32.46
다가구단독주택	10.07	월세	11.57
일반단독주택	1.49	무상	4.10
오피스텔	1.49	가계소득 방식	
기타	2.24	400만 원 미만	31.68
자녀 수		400~599만 원	40.84
1명	58.58	600~799만 원	20.61
2명	33.95	800~999만 원	3.05
3명 이상	7.49	1000만원 이상	3.82

자료: 통계청, 2021, 주거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집단 속성과 개인 속성 등 두 수준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모집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우선 개인별 면담을 기초로, 심층 면담을 1회 진행한 후,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질문을 만들어 전화 통화나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주택 유형과 점유 유형, 자녀 수, 가계소득 수준 등 연구 참여자의 집단 속성을 기초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같은 집단의 새로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때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의 비율이 통계적 수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가 강서구인 만큼 서울특별시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거이론적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특성을 가지며, 크게 ‘개방 코딩 → 축 코딩 → 선택 코딩 → 이론 통합’의 네 단계를 거친다. 우선 개방 코딩을 통해 자료를 해체하여 개념과 범주를 도출한 후 범주 간 관계를 비교하는 축 코딩을 거친다. 축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선택 코딩) 다른 범주와의 관계성을 확인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이야기 윤곽을 만들어 모든 범주를 통합한다(유기웅 외, 202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거이론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심층 면담으로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개방 코딩을 시행한 후, 범주 간 관계를 도출하는 축 코딩을 거친다. 이후 핵심 범주로 재장소화를 선택하여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을 통합한다.



[그림 1-2] 근거이론 분석 과정

4_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연구 과정과 분석 과정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장에서는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드라마에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로 인해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함께 현실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그로 인한 제약을 보여준다. 이어서 4장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을 받은 공간 인식 변화를 서술한 후,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범주이자 도시공간 재인식의 영향을 받은 재장소화 과정을 서술한다. 6장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본 연구를 종합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02. 드라마로 본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도시공간

1_드라마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

1) 드라마에서의 임신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 임신부랑 애 엄마가 엄청 많은 거 있지?”¹⁾

임신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며느라기 시즌2의 주인공인 민사린의 대사이다. 이 대사는 임신 후 동네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임신 후 주인공이 엄마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렸다. 임신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 변화는 음식물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하여 신체 에너지를 떨어뜨렸으며, 평소에는 잘 이용했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게 했다. 성취욕구가 강했던 민사린은 임신과 함께 직장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며 주변화를 겪기도 한다. 또한 임신부라는 이유로 보약 등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권유받기도 했으며, 혼자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과보호 등으로 인해 자유를 침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어느새 나조차도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²⁾

이 대사는 민사린의 시누이인 무미영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대사이지만, 민사린이 남편인 무구영과의 갈등 후 ‘혼자’ 카페에 가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 같은 연출은

1) 며느라기2...ing, 5화, “엄마가 된다는 것.” 이광영, 유송이, KaKaoTV

2) 며느라기2...ing, 6화, “그 오지랖 좀 넣어줄래?” 이광영, 유송이, KaKaoTV

민사린이 임신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장면에서 민사린은 카페에서 결국 자신이 마시고 싶었던 커피는 향만 맡은 채 마시지 못하고 과채주스를 마신다. 자신을 잃어간다고 느끼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민사린은 결국 태반과 자궁 사이의 피고임으로 인해 입원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시간에 생각을 정리한 끝에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한다. 결국 민사린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후배에게 내어줌으로써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 드라마에서의 출산

“나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이상한 엄마였고, 엄마가 되기 전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³⁾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 산후조리원은 주인공 오현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 최연소 여성 상무로서의 삶을 살다가 노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다양한 일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엄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위 대사는 임신과 출산 후 마냥 좋아할 수 없었던 오현진의 현실을 말해준다. 임신은 회사에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했고, 실제로 출산 후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는 자신이 스스로 한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마음은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오현진에게 육아휴직을 권하는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대화되며, 자신이 일도 좋아하는 사람임을 확실히 하며,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구하게 된다.

*“저희는 모유 수유 권장 조리원이예요.
모유야말로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⁴⁾*

오현진은 특히 출산 직후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그 혼란 때문에 산후조리원 원장과 산후조리원에서 지켜야 할 지침과 다른 산모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위 대사는 조리원에 입소하

3) 산후조리원, 1화, “산후조리원 3화” 박수원, 김지수·최윤희·윤수민, tvN

4) 산후조리원, 1화, “산후조리원 1화” 박수원, 김지수·최윤희·윤수민, tvN

자마자 받은 권유이다. 이러한 조리원의 방침은 그 공간을 모유 수유가 어려운 엄마에게 죄책감을 지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를 “딱풀이 엄마”, “사랑이 엄마” 등 아기 태명을 기준으로 부르고,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해야 하는 ‘모성애’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한다. 그곳에서 오현진은 엄마 자격을 박탈당하는 꿈을 꿀만큼 일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성애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며, ‘나’와 ‘엄마’의 양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3) 드라마에서의 양육

“지영아, 니도 힘들면 방에 좀 들어가 좀 쉬라. 잉.”⁵⁾

영화 82년생 김지영 또한 육아하는 엄마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지영은 설 연휴부터 남편 본가에 내려가 명절 음식을 하는 노동을 하고, 설 당일에는 시누이 식구가 온 후 혼자 부엌에 남아 있다가 전을 내오라는 주문과 함께 위 대사를 받는다. 위 대사는 겉으로 보면 김지영을 배려하는 말로도 보일 수 있지만, 쉴 수 없는 공간에서, 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쉬라고 말하는 그저 겉치레일 뿐이었다. 반면 이후 방문한 자신의 본가에서는 명절 노동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었다. 김지영의 본가는 같은 공간임에도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지만 언니인 김은영의 주도로 남성도 가사에 참여하는 집안으로 변화한 곳으로 연출된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몰라.”

“영호 구구단 가르치려고.”

“나는 우리 보람이 책 읽어 주려고 연기 전공했습니다.”⁶⁾

김지영의 딸 아영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이 서로의 전공을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의 대사다. 이는 그들이 임신 전 쌓았던 기술들이 출산 이후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새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아이의 일정에 맞게 살아야 하고, 베이비 시터를 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극 중에서 김지영은 출산 후 얻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일을 포기한다. 일을 포기한 후 김지영은 ‘어딘가

5) 김도영. (2015). “82년생 김지영[영화]”. 봄바람영화사.

6) 김도영. (2015). “82년생 김지영[영화]”. 봄바람영화사.

간혀 있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하며,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상팔자'라며 비하하는 사람을 피해 해당 공간을 벗어나기 바빴다면, 이후에는 자신을 '맘충'이라고 비하하는 사람에게 자신은 벌레가 아니라고 맞선다. 말미에는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을 되찾으며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2_드라마 속 공간의 역할

앞서 언급한 세 드라마는 주인공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생활은 늘 특정 공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세 드라마에서 공통으로 나온 공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신 전 카페는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며 찰나의 행복을 느낀 장소였다면, 임신 후에는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선택하지 못하고, 주문할 때도 타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타인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 출산 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공간이어서 이전과는 달리 주문만 하는 공간이 되었고, 그 공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도 아이와 동반했다는 이유로 '맘충'으로 비하 받는 공간이 되었다.

임신 전 집은 부부의 공간으로, 나의 사회적 삶을 뒷받침해 주는 공간이자, 안식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임신 후에는 집은 혼란을 경험하고, 감내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타인의 간섭으로 인해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즉 집이 마냥 편한 공간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출산 직후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이때 출산을 하였음에도 많은 행위가 제한되고,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출산 후에는 부부의 공간이 아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집의 성격이 바뀌고, 멀리 외출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타인을 초대하거나 타인에게 초대받는 공간이 된다. 또한 산후 우울증을 겪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간혀 있는 듯한 기분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드라마에서 묘사된 공간에서의 감정과 정서, 행위의 변화는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가 주인공에게 공간 의미 변화를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드라마에서 보인 장소화와 재장소화 과

정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화와 재장소화는 필히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장소성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기존 장소성을 흔들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장소는 어떤 이유로 선택되는지 분석하여 임신부와 산모의 삶을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_공간과 장소, 그리고 재장소화

공간과 장소에 관해 이야기한 그동안의 문헌(렐프, 2005; 전상인, 2014; 투안, 2020 등)은 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경험을 통해 공간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장소로 전환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공간에서의 경험과 감정이 장소로의 전환에 핵심인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을 두고도 각자의 시선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성을 형성하게 되며, 심지어는 무장소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장소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성을 지닌 채로 경험되며, 한 공간을 두고 장소로 경험하거나 무장소로 경험하는 일은 그 장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인 장소 정체성과 관련 있다. 특히 렐프(2005)는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 장소를 되찾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소로서의 공간이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전상인, 2014). 최종환(2014)과 박찬효(2015)는 문학에서 장소가 어떻게 재장소화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최인호의 소설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삭막한 공간인 도시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같은 장소라고 해도 주체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장소로 전환될 수 있다. 1장 1절에서의 논의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변화가 해당 공간에서의 경험과 감정,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에게 안식을 주었던 공간이 죄책감을 주기도 하며,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공간이 불안을 주기도 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변화가 주는 장소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감정으로 인해 그 장소는 나에게 새로운 장소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03. 현실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도시공간

1_심층 면담 개요

심층 면담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연구 참여자는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와 기존 연구 참여자가 새로운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모집 조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양동 및 등촌동 일대) 내에서 2020년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성인 여성이었다. 근거이론에서의 심층 면담 모집 방식을 기본으로 삼아, 심층 면담과 모집을 병행하여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5명, 눈덩이 표집을 통해 15명, 총 20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시 자녀 수와 주택 유형, 주택 점유유형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표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은 1대1로 진행되었고, 1인당 총 3시간 소요되었다. 첫 심층 면담 자료 정리 후 부족했던 부분은 이후 간단한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보완하였다. 심층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선정한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거주지 인근의 카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자주 가는 카페가 없었던 1인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임의로 거주지 인근의 카페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카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간적으로는 주로 여러 대의 유아차를 동반할 수 있는 넓은 카페로, 특히 좌석 간격이 넓은 게 중요했고, 이미 다른 엄마들이 많이 방문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중요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표 3-1] 심층 면담 개요

구분	내용
시기	2023년 8월 ~ 2023년 10월
대상자	연구 대상지 범위 내에 거주 중이면서 2020년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성인 여성
모집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및 눈팅이 표집
참여자 수	20명(홍보 5명, 눈팅이 표집 15명)
장소	연구 참여자가 평소 자주 방문하는 카페

주: 심층 면담 시기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20대 후반 ~ 30대 초반에 첫 아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노산의 기준인 만 35세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만 35세 이후로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연구 참여자는 3명(각각 만 35세, 37세, 39세)이었다. 둘째 아이 임신과 출산은 모두 30대 이상일 때 이루어졌으며, 만 35세 이후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연구 참여자는 3명(만 35세 2명, 37세 1명)이었다. 첫째 아이의 월령은 3개월~60개월이었으며, 둘째 아이의 월령은 6개월~31개월이었다. 아이의 아버지 혹은 조부모와 공동 육아하는 연구 참여자 2명과 주 양육자가 아이의 조부모인 연구 참여자가 1명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주 양육자로 거의 모든 시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다. 이는 남편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거주 특성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가 많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 일자리가 많아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고, 그에 따라 신혼집으로 오피스텔을 구하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는 고급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 거주자보다 부부의 경제적 수준이 아닌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낮았다. 점유 유형으로는 전세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자가 거주자와 월세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최근 전세가 하락세에 재계약을 한 연구 참여자는 역전세로 계약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신혼집으로 이 동네에 자리를 잡거나 결혼 후 이 동네로 이사 왔고, 결혼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던 연구 참여자는 1명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단순 홍보를 통해 모집한 연구 참여자도 눈팅이 표집으로 모집한 연구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보통은 육아 모임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흔쾌히 지인을 통해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 참여자가 복수의 육아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그 육아 모임이 가상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지는 않아도 ‘어느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더라’ 정도를 알음알음 듣고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육아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네 주민들이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만 나이		직업		가계소득 방식	
31세	1	정규직	2	맞벌이	6
32세	2	비정규직	2	남편 외벌이	14
33세	8	무직	5	아내 외벌이	0
34세	0	육아휴직	9	월평균 가구소득	
35세	3	사업	1	400만 원 이하	1
36세	3	자영업	1	400~599만 원	9
37세	0	자녀 수		600~799만 원	7
38세	2	1명	14	800~999만 원	2
39세	1	2명	6	1000만 원 이상	1

주: 1) 모든 수치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함
 2) 월평균 가구소득에는 육아휴직 수당 및 부모급여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함

[표 3-3] 연구 참여자의 거주 특성

(단위: %)

주택 유형		동네 거주 기간	
아파트	65	1년 미만	5
오피스텔	25	1년 ~ 2년 미만	20
다세대주택	10	2년 ~ 3년 미만	30
점유 유형		3년 ~ 4년 미만	5
전세	60	4년 ~ 5년 미만	15
자가	20	5년 ~ 6년 미만	15
월세	10	6년 ~ 7년 미만	2
역전세	5		
무상	5		

2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

임신과 출산은 연구 참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 변화는 크게 신체 변화와 정서 변화, 경제 변화, 생활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다른 변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엮여 있었다. 다만 변화를 새로 느낀 순서는 정리할 수 있었는데, 신체 변화, 생활 변화, 정서 변화, 경제 변화 순으로 변화를 느꼈으며, 임신기와 출산기, 그리고 양육기에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임신기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신체 변화였고, 출산기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정서 변화, 그리고 양육기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생활 변화였다. 경제 변화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된 것의 파생적 변화였으며,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등의 대체 소득이 있어 그 당시에는 크게 못 느끼다가 대체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 강하게 느꼈다.



[그림 3-1]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

1) 임신기(임신 인지 후~ 출산 전)

임신기는 연구 참여자가 피곤함, 매스꺼움, 나른함 등의 신체 변화를 통해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 시작되었다. 임신을 인지한 후에는 입덧을 경험한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로 나뉘었다. 입덧을 경험한 참여자는 입덧이 없어질 때까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해 온몸이 무기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유산 가능성이 있었던 참여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생활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집이 답답하다고 느꼈다. 그런데도 자기 행동으로 인해 유산될까 봐 걱정되어 외출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부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태아의 생존과 안위를 우선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선택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도 주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중기부터 서서히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도 체중이 많이 증가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체중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류도 모두 몸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행동이 느려지고 둔해졌음을 느꼈다. 이 당시 연구 참여자는 평소에 편하게 왕래하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하고, 신호등이나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자동차 등 평소에는 별생각 없었던 요소들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신부의 몸이 느려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배가 나와 임신부임이 티가 나는데도 대중교통에서 배려받은 경험은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도시공간의 속도가 임신부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고,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임신 말기에는 대부분 출산휴가에 돌입했으며, 출산 후 복직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는 남은 연차와 휴가 등을 써서 조금 더 일찍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거워진 몸으로는 집 주변을 벗어나기 어려워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집과 주변 산책만 겨우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시기의 정서는 흔히 말하는 ‘집순이’와 ‘밖순이’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집순이 연구 참여자는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많이 안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지만, ‘밖순이’ 연구 참여자는 너무 답답해서 매일 카페라도 나가야 했다고 언급했다.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방감은 공통으로 느꼈는데, 이내 복직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는 동시에 회사로부터의 소외감, 사회로부터의 주변화를 경험하였다.

2) 출산기(입원 후~신생아기)

출산기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감을 강하게 느꼈다. 출산 직후에는 몸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놀라고 당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왜 그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라고 반응했으며, 임신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기대했던 출산 후 즉각적인 해방감은 느낄 수 없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닌 아기를 위한 음식을 먹으며 다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다. 아기를 보면 신기하고 행복함에도 나의 몸을 보면 내 몸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강하게 상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고립감은 남편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기도 했다. 코로나19 자가

키트 음성 반응을 제출하면 남편은 출입할 수 있었던 조리원에 머문 산모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인이 있어 낮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출입이 불가능한 조리원에서도 남편이 창밖으로 보러올 때 얼굴 보며 통화하는 것으로 고립감을 덜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남편 출입 가능 조리원임에도 남편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산모는 다른 조리원에 있었던 산모와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한 산모들은 나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에서 남편만 편한 것 같아 남편이 꽤 씁쓸했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매일 밤 울었다고 했다. 어떤 산모는 고립감과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계약 기간을 단축해서 퇴소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작은 사람의 울음소리만 듣고 있으면 남편만 기다리게 된다고 했다. 남편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특정 시간을 전담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한 가정에서는 자신이 공감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지감을 느껴 우울감과 죄책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이 산모의 수면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정서적 안정이 훨씬 빨리 찾아왔다. 그러나 남편이 산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구를 수용해 주지 못하거나 함께하지 못할 때는 산모가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고, 부부 갈등이 심해졌으며, 당시 산모의 정서적 불안정이 훨씬 길게 유지될 뿐더러 양육기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3) 양육기(신생아기 이후)

양육기에는 산모들이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육아 모임 구성원과의 실제 만남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사회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 육아 모임을 중심으로 한 양육의 세계는 그동안 몰랐던 '신세계'였으며, 아이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유대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아기의 발달에 대한 불안감이 추가됐는데 그 불안감을 육아 모임을 통해 해소하기도 했고, 양육 과정의 고충을 직접 말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위로와 안도감을 부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과의 유대감이 강해지는 만큼 사회인들과의 유대감이 약해짐에 따라 자신이 주류가 아니고 더 주변화되었음을 느끼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박순이' 엄마와 '집순이' 엄마의 생활 방식이 비슷해졌다. 모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2번 외출하고 있었는데, '박순이'는 외출하고 싶어도 아기와

의 동행이 힘들어 그 빈도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집순이’는 하루 종일 말 안 통하는 아기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져 예전이라면 나가지 않았을 외출을 강행했다. 또한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도 아기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등 외출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연구 참여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원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억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 여부를 떠나서 일주일에 1~2번 타인을 만나는 현재의 생활 방식이 버겁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다.

아기와 함께 외출하면서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출 시 ‘죄송하다’라는 말을 수십, 수백 번씩 반복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는 ‘저출산이라고 난리면서 아이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죄송해야 할 일인 게 맞나’라며 화를 냈고, 일부는 ‘다들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있는데 낳은 내가 죄인’이라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태도는 다르지만 모두 아기를 낳기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는 굴욕감을 맛보았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외출 시 연구 참여자를 위축되게 만들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 늘 가던 곳만 반복해서 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공간적 자유 제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양육기는 임신한 이후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낀 시기이기도 하다. 그 첫 시기는 단유했을 때이며, 연구 참여자는 모두 떡볶이와 맥주 등을 먹으며 그 해방감을 누렸다. 육퇴(육아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고,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었다. 그 시간은 남편과의 맥주 한 잔으로 벌여졌던 사이를 봉합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내일도 잘 버티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두 번째 시기는 아기가 통잠을 자는 시기였다. 흔히 ‘백일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를 지나며 연구 참여자들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했다. 밤에 엄마가 이전보다 잘 잔 것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아기 생존에 대한 걱정을 덜어 불안감이 확 줄어든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생활 변화에서 파생된 경제 변화도 크게 느꼈다. 양육기 초반(출산 후 6~9개월)까지는 직장에 다니지는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자신의 소득이 있다는 생각에 경제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시기에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막막함은 경제적 자유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었고, 임신과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경제력을 박

탈당했다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때 집안 내에서 중요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기존 남편과의 동등한 지위를 잃음을 의미했다. 남편이 벌어오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였고, 동등한 지위를 잃지 않으려 양육 활동의 경제성에 대해 남편에게 피력하기도 했다.

경제력 상실로 인한 우울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났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경쟁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신은 남보다 못할지언정 내 아이가 남보다 못한 것은 견딜 수 없어 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출생자들로, 출생과 동시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경쟁해 온 세대였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육아로 이어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도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나는 못 해도 좋으니, 아이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했다. 특히 본가와 현재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필코 내 아이는 부족하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3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자유 제약

임신과 출산 후 여성의 삶은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엄마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기존 역할에 엄마의 역할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소멸되고 가정적 역할만 수행하는 ‘엄마로서의 나’로 완전히 전환되기에, 이전에 습득하고 개발했던 기술이 무용화됨에 따라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기도 했고, 사회적 주류가 아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아이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부담감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중압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아기를 통해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맛보기도 했으며, 아이와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 정서적 회복이 원활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을 찾는 과정이 매우 지난했으며, 고통스러웠다.

연구 참여자가 겪은 공통적인 혼란스러운 과정은 드라마에 나타난 것과 비슷했는데, 이는 그 과정이 일반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정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임신부와 산모가 겪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크게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

은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세대에게는 이런 제약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제약을 개인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

1) 공간적 자유 제약

공간적 자유 제약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방문했던 공간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고, 이는 연구 참여자의 시각 욕구와 경험 욕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함께 자신의 취향을 바탕으로 꾸몄던 예쁜 집에 아기용품이 점점 늘어나 시각적 조화가 무너지고 치워도 치워도 깔끔하지 않은 집을 바라보며 집에 대한 애착이 저하되었고, 부부의 집으로 인식했던 공간을 아기의 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신 전에는 예쁘고 멋진 카페나 숙소 등을 방문하여 시각 욕구를 충족하였는데, 출산 후 아기에게 맞춘 카페와 숙소 등을 선택하게 되어 시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욕구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경험적 욕구는 자신이 좋아하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못 가게 되면서 제약되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던 연구 참여자는 대신 대형마트에서 아기와 산책하게 되었고, 캠핑을 좋아해 캠핑장을 자주 가던 연구 참여자는 공원조차 쉽게 나가지 못했다. 또한 도서관에서 에세이나 시집을 자주 빌려 읽던 연구 참여자는 이유식 레시피 책을 빌려 읽게 되었다. 즉 출산 전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공간의 경험 욕구를 충족했다면, 출산 후에는 생활반경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방문하는 공간과 활동이 모두 단조로워졌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욕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엎매인 삶’, ‘즐겁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

2) 시간적 자유 제약

연구 참여자는 일을 그만둬으로써 직장에서의 업무 대신 가사와 육아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육아가 가사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직장에서의 업무는 퇴근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던 반면 가사와 육아는 경계가 없어 퇴

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육아와 가사를 반복하는 굴레에 빠졌다. 매일 퇴근 후 즐기던 자유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자는 시간을 줄여야 온전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짧게 얻게 된 자유시간조차 언제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밤에는 아기가 밤에 언제 깰지 모르기에 비상근무 하듯 밤새 편히 쉬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부 양육자를 신뢰하지 못할수록 더 짙어졌다.

주 양육자인 연구 참여자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아기의 패턴에 맞춰 외출해야 했다. 그 외출은 주로 아기가 분유나 이유식 등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출발하여 저녁 준비 시간 전까지 3~4시간가량 이루어졌다. 특히 이유식을 먹는 아기는 꼭 점심 이유식을 먹고 난 후에 집을 나섰는데, 이유식을 들고 다니기 힘들뿐더러 밖에서 이유식을 먹이는 게 번거롭고, 데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아기와 함께 외출하지 않아도 그런 패턴은 유지되었다. 점심을 먹인 후 부 양육자에게 놀이와 낮잠을 맡긴 후 외출했다. 그러나 외출 후 자유시간을 갖게 되더라도 언제 아기에 관한 전화가 걸려 올지 몰라 마음 놓고 놀지 못하고, 언제든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 방문했다.



04.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간 인식 변화

앞서 살펴본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제약은 연구 참여자의 도시공간 인식이나 공간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동시에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세상 또한 달라졌다. 몸이 느려진 탓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고, 안전 욕구가 높아진 탓에 작은 변화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전까지는 관심 없었던 영역에 관심이 생겼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그 변화가 어떻게 도시공간 인식과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가 도시공간 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도시공간 재인식으로 인해 공간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1_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가 도시공간 재인식에 미친 영향

1)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아이와 아이의 짐

주 양육자로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다면 언제, 어딜 가든 늘 아기와 함께 나서야 하고, 아기를 위한 짐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다. 보통 아기 짐으로 기저귀, 분유통, 분유 물, 이유식, 여벌 옷, 손수건, 담요, 물티슈, 간식, 비상약, 작은 장난감, 쪽쪽이 등을 들고 다녔다. 이런 짐만 해도 2kg은 족히 되었고, 연구 참여자 자녀의 무게는 7~13kg으로,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든 무게였다. 이러한 무게는 연구 참여자들이 아기띠보다 유아차를 선호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쳤고, 10kg 내외로 무겁고 부피가 큰 유아차는 도시공간 인식과 공간 선택에 새로

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연구 참여자가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다행히 아이 집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집에서부터 거의 모든 물건을 챙겼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 시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져서 챙겨야 하는 짐이 줄어들었다. 그중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분유 수유의 유무였다. 분유를 먹는 시기의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분유와 함께 분유를 탈 물도 챙겨야 했다. 물은 자체만으로도 무거웠지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온병에 담아 다녔어야 했는데, 보온병도 일반 물병에 비해 무거웠다. 이에 더해 환경호르몬을 생각하여 유리 젓병을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는 젓병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액상 분유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5개월 아이를 둔 해인의 기저귀 가방



8개월 아이를 둔 수민의 기저귀 가방



12개월 아이를 둔 한나의 기저귀 가방



31개월 아이를 둔 은혜의 기저귀 가방

[그림 4-1] 연구 참여자가 들고 다니는 아기 짐

2) 위험한 도시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차를 끌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도가 이렇게 안 좋은지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하며 연말마다 보도블록을 공사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인도의 경사는 연구 참여자의 손목에 무리를 주었고, 고르지 못한 평면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물구덩이가 생겨 연구 참여자를 우회하게 만들었으며, 보도블록이 깨져 울퉁불퉁한 인도는 아기의 발이 걸리거나 유아차 바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그러나 그런 인도는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곳들이 많았고, 신고해도 수리에 오래 걸렸다. 또 연말에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해도 얼마 안 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코너에 설치된 부스와 길거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등은 유아차 운전엔 큰 방해가 되었다. 유아차를 운전하면 그냥 걸어 다닐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방해물을 피하는 것조차 힘겹게 피해야 했다. 유아차 자체 무게에다가 아기 체중, 짐 무게나 장 본 무게까지 더하면 약 30kg을 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방해물이 멀리서도 보이고, 보도의 폭이 넓다면 먼 거리에서부터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에 비교적 수월했지만, 방해물이 갑자기 보이거나 폭이 좁은 인도에서는 순간적으로 피해야 하기에 신체에 무리였다. 출산으로 인해 약해진 신체를 회복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는 그런 순간적인 무리를 겪으면 그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보행 신호 시간이었다. 유아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걸차를 걸쳐야 했다. 우선 유아차의 부피 때문에 횡단보도 시작점에서 대기할 수 없었고, 보통은 인도 안쪽에서 대기했기에 건너야 할 거리가 증가했다. 또한 유아차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차할 때마다 잠금장치를 걸었는데, 신호가 바뀐 후 바로 준비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출발해도 2초 정도가 더 소요됐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걸으면 촉박하고 신호가 바뀔까 불안해졌다. 임신 전에는 신호 중간에도 뛰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호 시작에 출발하지 못하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길거리의 흡연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도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흡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는데,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화상 등을 걱정하기도 했다. 특히 걷는

아기를 키우는 연구 참여자는 성인이 담배를 들고 있는 높이가 아기의 눈높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 연구 참여자가 길거리 흡연과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잦은 공간을 피해 목적지까지 우회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길거리 흡연자를 마주칠 때는 유아차 뒷개를 덮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오토바이는 피하기 힘들어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은 처음부터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아기를 보호할지 시뮬레이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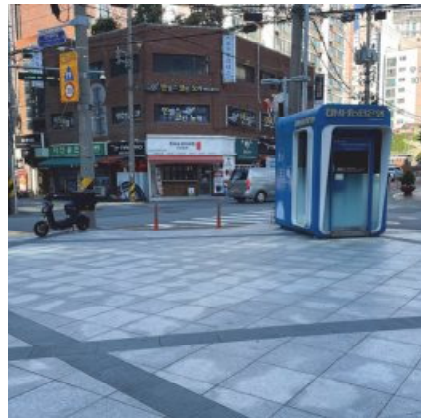
깨진 보도블록은 유아차를 이용하는 연구 참여자의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었다.



표면이 미끄러운 경계석은 우천 시 위험하며, 작은 높이 차이도 연구 참여자에게는 크게 느껴졌다.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는 연구 참여자가 우회하게 만들었다.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설치된 부스나 오토바이, 쌓인 물품 등은 유아차 운전 방해가 되었다.

[그림 4-2] 인도의 불편한 점

3) 배려 없는 대중교통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후 대중교통이 배려 없는 시설이었음을 알게 됐다. 연구 참여자 중 임신부 배려석을 원활하게 이용한 사람은 드물었다. 보통 임신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임신부 배려석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운 좋게’ 임신부 배려석 앞까지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 임신부 배지를 내어놓고 앞에 서 있어도 비켜주는 사람은 드물었고, 그 상황에서 임신부니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행위였다. 특히나 그 사람이 명백히 임신부가 아닌 때에도 양보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 배려는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임신부가 보이면 먼저 나서서 자리를 챙겨주게 되었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대체로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직무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출퇴근자들이 몰리는 첨두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임신부 배려석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출퇴근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신부를 보호하는 조치 중 하나인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의하면 여전히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는 회사가 많았다. 또한 회사 자체에서는 이 규정을 수용한다고 해도 직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유연제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였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의 속도는 임신부나 아기를 동반한 양육자에게는 너무 빨랐다. 지하철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버스를 탈 때는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출발하여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대체로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 역사의 위치와 접근성이었다. 임신 전 쉽게 이용했던 지하철 입구의 에스컬레이터도 임신 후에는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엘리베이터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위치는 출입구마다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까지 돌아가야 했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이용하기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임신부인 연구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상황이 연출되었다.

4) 막상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러니하게도 연구 참여자들이 자주 가는 곳 중 하나인 대형마트에는 아기를 위한 물품을 파는 매장이 드물었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아기 키우는 집이 정말 많은데도 마트에서 아기 옷을 살 수 있는 매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 옷을 사려면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거나, 온라인으로 사야 했다. 또 막상 보행 일상권 내에 키즈카페나 공동육아방, 베이비 풀장 등이 없어 동네에서는 대형마트 말고는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육아 모임 구성원끼리 다 같이 시간을 맞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야 했다. 택시는 너무 비싸고, 출산 전부터 운전 능숙하지 않았던 양육자는 출산 이후 아기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불안해 직접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다른 동네는 아기가 없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이 동네는 여전히 많은 아기가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야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을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은 양육자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초등학교에 관한 걱정은 학군보다는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학군지로 가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조차 교육에 대한 열망보다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연구대상지 내에 초등학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주공아파트단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몰려 있어 그 외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가 보내기에는 다소 먼 거리였다. 특히 큰길을 건너야 할수록 걱정이 많았고, 다음 이사 시 ‘초품아’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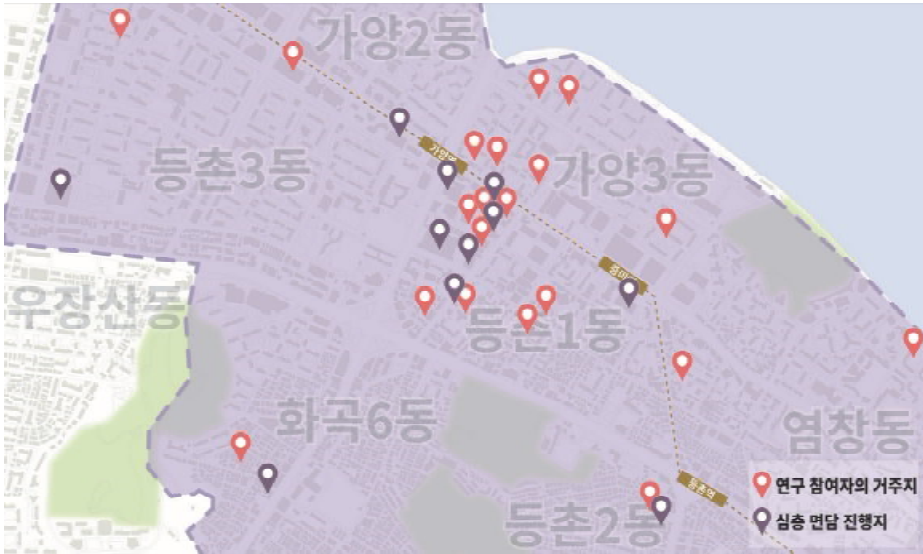
초등학교에 대한 걱정은 학구도 내 초등학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많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백석초등학교구역은 가양역에서부터 등촌역 인근에 이르는 블록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가양역 인근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성인 걸음으로 약 20분이 걸리는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골목길은 보도가 이어지지 않고, 승용차나 트럭 등 차량이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아이가 통학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큰길로 걸어간다고 해도 성인 기준 도보로 25분 정도가 걸리며, 왕복 10차선의 큰길의 보도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다니고, 골목길 등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환경은 연구 참여자의 주거 이동 욕구를 증폭시켰다.

이 방문하는 실내 공간으로는 대형 쇼핑몰과 교외 카페가 있었고, 실외 공간으로는 공원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과 교외 카페도 대부분 실외 공간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구 참여자에게 ‘리프레시’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공원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과 차로 이동해야 하는 공원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집 근처 공원은 걷고 달리는 등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가, 차로 이동해야 하는 공원은 아직 유아차에 자녀를 태우고 산책하는 연구 참여자가 주로 방문했다. 대형 쇼핑몰과 공원 모두 집에서부터 차로 30분 이내에 있는 곳을 주로 갔고, 그 이상의 거리는 1년에 1번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먹고 가야 했다.

1) 심층 면담 진행지의 특성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면담 장소를 연구 참여자가 자주 가는 카페로 결정했다. 흥미롭게도 심층 면담을 진행한 카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연구 참여자의 공간 선택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연구 참여자 거주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카페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선택한 카페는 공통점이 있는 몇 곳에 불과했다. 모든 카페는 연구 참여자 집에서 도보 15분 이내에 있었으며, 총 20명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심층 면담 진행지로 선택된 카페는 11곳에 불과했다. 그중 ㄲ카페와 ㄴ카페, ㄷ카페에 각각 3회로 가장 많이 방문했는데, 그중 ㄴ카페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카페이다. 뒤이어 ㄹ카페와 ㅎ카페는 각 2회씩 방문했고, 다른 카페는 1회씩 방문했다.

연구 참여자가 출산하기 전 방문하는 카페와 출산한 후 방문하는 카페는 완전히 달랐다. 예를 들어 유명 프랜차이즈인 ㄴ카페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가 자주 가는 장소였다가 출산 이후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카페였다. 그 이유는 직장인과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기에 아이와 자신이 방문하면 민폐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ㄴ카페에서 자녀와 동반한 채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이 주변인을 살피는 행동을 보였다. 이것은 자신이 좋아했던 ㄴ카페의 분위기를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은 선택인 동시에 자신은 이제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ㄴ카페에 여전히 방문하고 싶은 연구 참여자는 방문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잠시 들려 포장해 오는 시간만 누리기도 하였다.



주: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카페 이름은 기입하지 않았음

[그림 4-4]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와 심층 면담 진행지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카페는 유아차로 진입할 수 있는 카페와 그렇지 않은 카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제 유아차를 사용하지 않아 그로 인한 제약이 없어진 연구 참여자 1명을 제외하면 모든 연구 참여자가 유아차를 동반한 채로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선택했고, 그런 카페는 동네 내에 몇 군데 없었다. 그들이 그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유아차가 진입하기 편한 공간이어야 했고,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분위기여야 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그들은 자신과 아이가 받아들여지고 환대받는 공간을 찾은 것이었고, 적어도 배척받지 않을 공간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는 스스로도 ‘아이와 엄마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깔려 있었다.

유아차가 진입하기 편한 공간의 조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 진입로에 단차가 없어야 했다. 출산 후의 근력으로는 그냥 밀면 넘어갈 수 있는 1~2cm보다 높은 단차는 큰 장애물이었다. 특히 문이 고정되지 않는 매장은 문을 붙잡고 유아차를 들어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두 번째는 좌석 간 간격이 넓어 유아차를 끌고 다닐 수 있어야 했고, 좌석 옆에 유아차를 주차할 수 있어야 했다. 이때 충분한 간격은 손잡이에 짐이 매달린 유아차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는 80cm 정도였으며, 한쪽에 80cm의 여유가 있는 곳에 유아차를 주차한 후 카페를 이용했다. 사방

으로 80cm 이상의 간격이 있는 카페에는 다른 엄마들과도 함께 방문할 수 있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했다.

연구 참여자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조용하지 않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차분하지 않고 부산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아기의 돌발적인 행동이 묻히기 때문이었다. 아기는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고, 훈육 시기 이전에는 그런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집 밖에 나서는 순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아기의 돌발 행동이 묻힐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었다. 또 연구 참여자의 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아기가 많이 방문하는 카페에서 편안해했는데, 이는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그 공간에 있는 다른 엄마들도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을 양해해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카페에는 다른 아기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동네 엄마들도 그 카페를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연구 참여자와 같은 이유로 해당 카페에 방문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대형마트 내에 있는 카페는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문화센터 수업 후 방문하기 쉽고, 모임 후에는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 본 후 귀가할 수 있어 늘 아기와 엄마로 붐볐다. 이 카페에서 아기 이유식을 데워주는 서비스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환대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그래도 동네에 아기 키우는 집이 많아 다행이라며, 아기 키우는 집을 동네의 자산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표카페



표카페

[그림 4-5] 심층 면담 진행지 사진

2) 실내 공간: 대형 쇼핑몰과 교외 카페

연구 참여자는 외출할 때, 특히 처음 가는 공간을 갈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다. 그곳에 유아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수유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아기 의자가 있는지, 주차가 편리한지 등을 확인했다. 이런 과정은 출발 전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절차이기도 했고, 이미 그것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찾아보지 않아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형 쇼핑몰이었다. 특히 가장 좋았던 수유실을 질문했을 때 모두 유명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언급했는데, 그만큼 수유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대형 쇼핑몰에 아기 엄마들이 많은 것을 두고 혹자는 ‘할 일 없으니 남편 돈 펄펄 쓰는 여자들’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대형 쇼핑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외 활동을 좋아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그 욕구를 교외 카페로 대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캠핑을 좋아했던 연구 참여자는 아직 아기가 어려 캠핑을 갈 수 없어 캠핑장 느낌이 나는 카페를 찾아간다거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카페에 찾아가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을 때 운전이나 짐을 들어주는 등의 남편 지원이 있어야 갈 수 있어 쉽게 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런 곳을 가도 수유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유아차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카페들은 소위 말하는 ‘힙한’ 곳이었기에 아기와 오래 있기 눈치 보였다고도 한다. 그래서 점차 그런 컨셉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교외 대형 카페 중 ‘키즈 프렌들리’를 내세우는 카페로 가게 되었다.

3) 실외 공간: 공원

활동적인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은 매일 같이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참여자 자신을 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위한 경험이었고, 매일 같은 놀이를 되풀이하는 것이 지겹기도 했다. 이런 공원은 대부분 작고, 놀이터 정도만 있어서 연구 참여자가 산책할 수 없기도 했다. 반면 차를 타고 가는 동네를 벗어난 공원은 연구 참여자에게 집 밖에 나온, 새로운 기분을 부여했다. 특히 연구 대상지와 가까운 마곡나루역에 있는 서울 식물원은 연구 참여자들이 종종 찾는 공원이었는데, 잘 정돈되어 있고, 길이 선형이 아니어서 머물며 산책하는 기분을 더 돋우었다. 반면 연구대상지 내 한강 변을 따라 만들어져 있는 근린공원은 좁고 긴 형태여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무작정 걷는 기분을 들게 했다.

이러한 공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집과 동네에서의 밀폐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 외출할 수 없을뿐더러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밀폐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동네에서 밀폐감을 느끼는 건 예상 밖이었다. 동네는 분명히 집을 벗어난 외부라는 의미에서는 집에서의 밀폐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다닐 수 있는 동네가 도보 15~20분 이내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었기에 동네는 집이 확장되어 넓은 영역에서 밀폐감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원은 연구 참여자에게 그런 밀폐감을 해소하는 개방감과 동시에 동네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05. 재장소화 과정 분석

앞서 살펴본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변화와 도시공간 재인식은 궁극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재장소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장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해 달라졌기에 4장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재장소화가 이루어진 주요 공간이라는 점에서 따로 분류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장소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삶 전반에 걸쳐 장소화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요인이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때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기별 장소화 성격을 분류한다. 이후에는 임신과 출산, 양육 시기에 따른 거주 양식과 중요한 장소의 의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재장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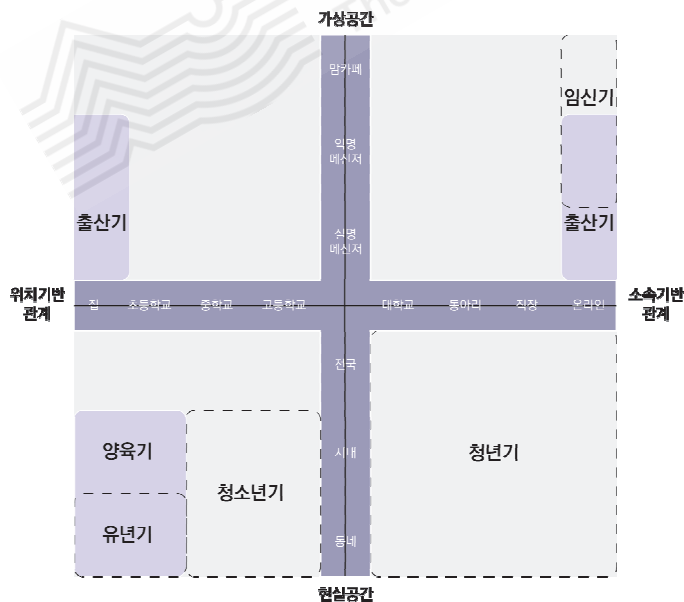
1_장소화 성격 변화

연구 참여자의 장소화 과정은 시기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공간을 함께 이용한 사람에 의해 달라졌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는 위치기반의 관계와 현실공간의 범위가 모두 확장되었다면, 임신기 이후에는 가상공간과 온라인 기반의 관계가 중요해졌고, 양육기에는 다시 위치기반의 관계가 공고해졌다. 이는 임신과 출산 후 공간 및 시간적 제약과 관련이 있었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 통제 밑에 있어 공간 및 시간적 자유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청소년기에는 학원을 통해 익숙해진 시내에서 친구들과 놀며 공간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들어서 대학에 가면서 부모 통제를 벗어났고, 시간적 자유도 증가하여 전국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 그러다가 임신을 경험하면서 큰 전환을 맞이했다.

임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기까지 가졌던 소속 기반의 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임신기에 기존에 속해있던 집단에서 떨어져 소속감이 약해지고, 소외

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집단에서 배제되는 경험의 영향도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집단 구성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졌기에 예전처럼 소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영향도 컸다. 특히 연구 참여자는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친지에게 자신의 관심과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임신을 경험한 친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인식했고, 자연스럽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맘카페에 대한 소속감과 의존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기에 접어들수록 온라인 모임이 아닌 동네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는 아기를 돌봄으로써 강하게 생긴 시간적 제약 때문이었다. 시간적 제약은 주 양육자가 먼 곳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청년기의 이동 능력을 무력화했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동네로 제한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인이 절실했는데, 연구 참여자는 그 방법으로 맘카페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주 양육자를 찾는 것을 택했다. 이는 유년기의 집 기반 관계로 돌아가는 행위였지만, 양육기에는 시간 제약이 완화되어 청년기의 이동 능력을 활용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시내 정도까지는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림 5-1] 시기별 재장소화 성격

2_임신과 출산 후 재장소화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거주 중인 동네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였고, 출산까지 경험하였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거주 방식이나 공간 인식, 의미 있는 공간, 공간 이용 방법, 공간에서의 경험 등이 바뀌었고,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재장소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같은 공간적 범위에서 장소화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들의 거주 방식을 살펴보면, 임신 전까지는 직장까지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거주지를 선택하고, 쉽게 옮겨 다니는 유목적 거주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임신을 한 이후 정주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출산 이후에는 이에 더해 육아 모임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거주 형태를 띠었다. 관계적 거주는 동네에 애착을 느끼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이유로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했다.

동네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공간도 바뀌었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가 9호선 지하철역과 고속도로까지의 거리인 만큼, 임신 전에는 자신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지하철역 등의 교통 공간을 주요한 자산이라고 여겼다. 이 시기에는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으며,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동네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았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야 할 때 동네에 더 가까운 백화점이 있음에도 직장 근처가 더 익숙해 굳이 집에서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임신기 이후로 점차 외부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동네 안에 있는 공간을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임신 전 교통이 좋아 선택한 거주지가 임신 후에는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어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

[표 5-1] 재장소화 주요 장소

	임신 전	임신기	출산기	양육기
거주 양식	유목적 거주	정주 추구		관계적 거주
주요 장소	지하철역	맘카페	산후조리원, 집	대형마트(문화센터)
의미	이동성 증진	마음의 안식처	내 돈 내고 들어가는 감옥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1) 마음의 안식처, 맘카페

임신기와 출산기에 걸쳐 가장 주요한 장소는 동네에 있는 현실 공간이 아닌 맘카페였다. 임신기 동네에서 의미 있게 이용하는 현실 공간은 혼자 이용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정도에 불과하지만, 맘카페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들의 경험이 연구 참여자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가 검색포털이나 블로그 등 대신 맘카페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그곳의 글과 댓글은 임신 및 출산 선배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는 시기에 그 작은 변화가 안 좋은 일이 아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맘카페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출산 이후 지역 기반의 육아 모임을 형성하는 데에도 맘카페가 중심 역할을 했다.

임신기와 출산기를 걸쳐 동네의 자산이라고 새롭게 인식된 시설은 산부인과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산부인과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출산이 가능하고, 비상시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한 산부인과가 집 근처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했다. 특히나 도보 15분 이내에 산부인과가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걸어서 산책하듯 다녀올 수 있는 게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가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데, 병원을 신뢰하기도 했지만, 가격 할인도 중요한 이유였다. 미디어에 나오는 화려한 산후조리원은 선택지에도 없었으며, 대부분 가격을 우선 고려해서 고르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첫 아이 때 더 저렴한 산후조리원에서 불만족한 산모는 둘째 아이 때는 좀 더 좋은 곳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2) 고립의 공간, 산후조리원과 집

한편 출산 전에는 동네의 자산이라고 인식되었던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고립감을 강화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 ‘산후조리원’과 같은 생활을 예상하며 입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산모 간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강연 등 활동이 있던 조리원도 각자 수업을 듣고 흩어지는 식이었으며, 식사도 따로 하여 산후조리원 내에서 ‘조리원 동기’를 만들 수 없었다. 친지의 방문마저 제한되어 산모들은 약 2주간 독방에서 혼자 머무르며 고립감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조리원을 ‘돈 내고 들어가는 감옥’, ‘천국인 줄 알았던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모들은 맘카페에서 같은 조리원에 있는 산모를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각자도생’으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노력으로 보통 1~2명의 산모와 친분을 쌓고 퇴소했다.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지만, 현실은 자신이 젖 짜는 기계였다고 표현할 만큼 ‘엄마 되는 훈련’을 받는 공간이었다. 산모의 건강보다는 아기에게 좋은 것을 우선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했으며, 아기를 산모에게 ‘떠미는’ 행태 또한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산모들에게 죄책감을 주었다. 모유를 주지 않는 산모는 그 때문에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했으며, 아기를 충분히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신을 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죄책감을 느끼는 공간이었고, 그러한 공간에서 고립된 산모들은 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감은 첫째 때만 적용됐고, 둘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첫째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공간으로 더 강하게 인식되었다.

산후조리원 퇴소 후 신생아기까지 집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은 더 심해졌다. 나의 의지가 아닌 아기의 의지대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으며, 특히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은 연구 참여자의 정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호르몬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으며, 불안정한 자신이 아기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까 걱정하기도 했다. 창밖을 보며 ‘나의 세상’과 ‘저들의 세상’을 분리하기도 했고 내가 살았던 사회가 맞나 싶은 아득함을 느끼기도 했다. 우울감이 심했던 산모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견디기도 했으며, 아기가 미워 보이고, 아기를 원망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부족한 자신의 탓으로 돌렸고, 그 죄책감에 매일 울기도 했다.

3) 육아의 공간, 대형마트

출산 전까지 대형마트는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가까이 있어서 좋지만, 온라인으로 장 보거나 차 끌고 가면 되어서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출산 후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며 보행 일상권 내 문화센터가 있는 대형마트는 큰 자산이 되었다. 보행 일상권 내에 대형마트가 있는 연구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는 그 행태가 크게 차이 났다. 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잠시라도 대형마트를 다녀올 수 있었지만, 후자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과 체력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형마트 방문 빈도가 낮았으며, 대형마트가 자연스럽게 육아 모임 장소가 되면서 모임도 덜 참석하게 되었다.

보행 일상권 내에 있는 대형마트는 산책로로 기능하기도 했다. 특히 여름에 너무 덥거나

겨울에 추위 실외 산책이 어려울 때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대형마트 실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형마트 내 바닥은 마감이 잘 되어 있고 평평하기 때문에 유아차를 운전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층마다 한 바퀴씩 돌면 산책에 적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대형마트 내에는 수유실이 준비되어 있었고, 진열된 다양한 상품은 아기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어 아기도 엄마도 지루하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내에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건 아쉬운 점이었다. 유아차는 안전 때문에 무빙워크를 이용하기 어려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는 엘리베이터가 1대밖에 없어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했다.

4) 이젠 정말 나의 동네

출산 전 연구 참여자의 동네는 집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길이 전부였다. 필요할 때 그 길에 있는 카페와 식당을 이용했으며, 그 이상의 활동은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결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출산을 통해 그들에게 공간 및 시간적 제약이 생기자 동네가 중요해졌다. 그들의 생활반경은 보행 일상권으로 좁혀졌고, 평소 외출은 모두 15분 이내에 있는 공간에서 해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형적으로 인식했던 동네가 집을 중심으로 방사 형태로 바뀌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새로운 중심 공간인 대형마트까지의 영역을 동네로 인식했다. 또한 동네를 더 상세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주택가를 인지하기도 했고, 놀이터와 분수 등 작은 시설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네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 동네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과거에는 출퇴근 용이성과 가격만을 고려하여 선택한 거주지기에 편리함은 느끼지만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느꼈다면, 지금은 이사 갈 생각하면 아쉬운 동네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향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많았는데, 새로 이사 가더라도 지금처럼 적응해서 살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다. 그 걱정에는 과연 아기 엄마들이 많아서 나와 맞는 아기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문화센터가 근처에 없는데 다닐 수 있을지 등을 걱정했다. 이사를 결정한 연구 참여자도 '이것만 아니면 여기에 계속 사는데'라는 말을 통해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이 동네에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2020년~2021년)에 두 아이를 연달아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 전 동네를 그리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당시 산후 우울증이

5) 떠나고 싶은 나의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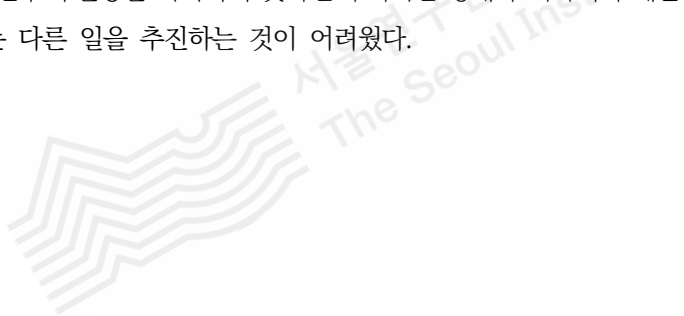
양육 과정에서 ‘내 동네’라고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많은 연구 참여자가 주거 이동을 계획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현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현 거주지가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상황의 불안정에는 아직 집을 매매하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이사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한편 현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준공업지역과 밀집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집이 있는 건물에서 나오면 바로 차길이고, 골목별로 차량 이동이 잦으며, 사람 이동이 많아 어수선했던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거지는 “초등학교를 품은, 적어도 30평대의 비교적 저렴한 공원형 아파트”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여 적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집안이 여유롭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몇몇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이런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울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로 이동할 여력이 있는 연구 참여자 중 전세 거주자들은 매매나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여 이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그럴 여력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인천 등의 아파트 가격을 주시하며 이사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주거 환경 측면으로는 이사하고 싶지만,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전세 등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보다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주거 이동을 더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는 현재 집을 팔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심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혹시나 그 자산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 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영끌’로 집을 매매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집을 팔았을 때 세금과 이사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득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가 거주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에는 투자의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거저에 깔려 있었다.

주거 이동 의사가 없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는데, 주거비 부담이 그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그들은 물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지만, 그런 곳은 분명히 집값이

높을뿐더러 임대료도 비싸기에 매매는커녕 임대로도 거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이 있었으며, ‘돈 없이 아이 낳은 게 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주거 정책과 보육 정책 정보 습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주거 정책을 너무 복잡하다고 인식하여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해하기도 했고,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나 정도는 그런 혜택 못 받을 거야’라는 생각에 시도를 안 하기도 하였다.

정리하자면 주거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차이는 변화된 주거 욕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요소에 대해 주거 이동을 계획하는 연구 참여자는 ‘그렇기에 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주거 이동을 계획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는 ‘그것만 참으면 되니까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자신의 주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과 주거 욕구를 참고 가지치기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 수준과 산후 우울증 극복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현 상태를 벗어나는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다.



06. 정책 제안: 그들을 돕는 방법

재장소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요소들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 여러 방면으로 제약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낮추고 있었다. 심층 면담에서 이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도시공간 이용 불편, 행정 제도 불편 등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면, 여성은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합계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과 물리적 개선, 행정적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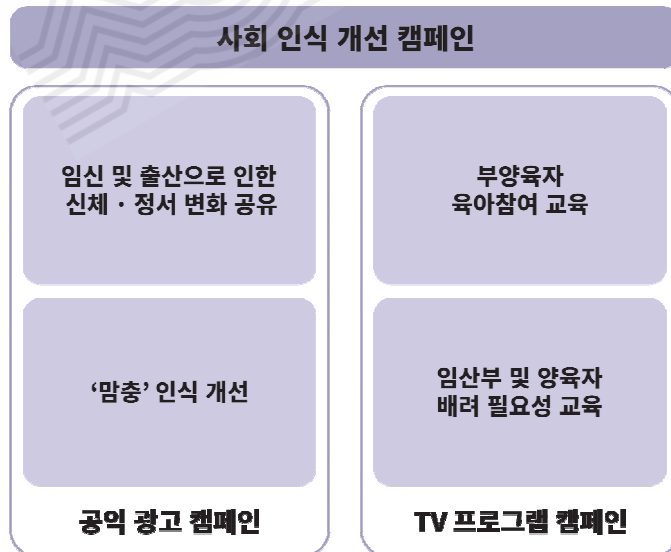
1_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앞선 드라마들을 분석하면서 온라인에서 해당 드라마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았다. 그중 눈에 띄는 의견은 '특정 상황'의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너무 일반화했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 내용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나친 일반화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 인식 캠페인은 신체와 정서적 변화를 공유하고, '맘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부 양육자의 육아 참여도를 개선하고 양육자 배려 필요성을 교육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인식을 바꾸는 방법과 TV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

여 적극적으로 대중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방법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를 공유하고, ‘맘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중에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거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마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맘충’이라는 단어가 기저에 깔려 있기에 접근성 높은 공익 광고 캠페인이 적절해 보인다. 이때 요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대중이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부 양육자의 육아 참여도 개선과 임신부 및 양육자 배려 필요성은 TV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광고 등의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부 양육자 육아 참여 교육은 각 가정에 맞는 세밀한 조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아 참여 시간을 한 시간 늘리세요.”라는 조언 보다는 “밤에 아이 재우는 건 부 양육자가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등의 조언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다. 이에 부 양육자 육아 참여 교육은 실제 사례를 기초로 육아 전문가가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임신부 및 양육자 배려 필요성 교육은 대시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실생활에서 그들이 겪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주는 것을 추천한다.



[그림 6-1]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제안

1)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 공유하기

연구 참여자는 공통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가 자신의 예상보다 드라마틱했음을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도 납득하지 못할 행동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였던 연구 참여자조차 당황스러울 정도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들이 겪는 변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변화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그 변화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이기만 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공익 광고 시청자에게 그들의 변화가 자신의 손해로 인식하지 않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맘충’ 인식 개선

‘맘충’은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 갈등 중 하나이다. ‘맘충’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비하와 혐오의 시선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었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연구 참여자들의 외부 활동은 위축되고 있으며,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언제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중은 자신과 ‘맘충’을 분리함으로써 사회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을 비하하는 시선은 단호히 뿌리 뽑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부 양육자 육아 참여 교육

가부장적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의 육아를 맡고, ‘아빠’가 돈을 벌어오고 있다. 그렇기에 ‘육아’가 ‘가사일’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빠’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 단 한 가정만이 남편과 공동육아를 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연구 참여자의 육아 참여도가 더 높았다. 때문에 ‘육아’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남편도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이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는 없기에 외출 시 남편이 아이를 돌보거나 주말 주 양육 담당 등 틈새에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임신부 및 양육자 배려 필요성 교육

연구 참여자 모두 임신부 배려석이나 엘리베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배려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은 대중이 그들에게 배려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간접받은 경험 또한 임신부나 양육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기에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대시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보여줄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일상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한 연구 참여자에게 타인이 유아차에 불쑥 얼굴을 들이미는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날 비슷한 광경을 다섯 번 목격하기도 하였다.

2_보행 일상권에 기반한 물리적 개선

모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생활권을 도보 15분, 최대 도보 20분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우선 아이의 생활 리듬에 맞춰 연구 참여자도 생활하기 때문에 긴 시간 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멀리 이동할수록 더 많은 짐을 챙겨야 하기에 체력적으로 더 부담되고, 아이의 인내력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의 짐을 넣은 유아차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집 주변의 15~20분 내 생활권을 의미하는 보행 일상권 범위에서 양육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여 그들이 공간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 일상권 내에서의 유아차 친화 공간 조성, 육아 모임 공간 지원, 흡연 공간 제한을 제안한다.

보행 일상권에 기반한 물리적 개선

유아차 친화 공간 조성

보행자 도로 개선

차노와 같은 높이의,
안전석 등이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도로

유아차 주차장 마련

식당이나 수유실 앞에
유아차 주차공간 마련

보행 신호 시간 연장

유아차 이용을 고려한
보행 신호 시간 설정

육아모임 공간 지원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육아모임에 공간 대여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영아도 방문할 수 있는
키즈카페 조성

공공수유실 설치

공공기관 수유실 개선
공공수유실 설치 의무화

흡연 공간 제한

길거리 흡연 단속

길거리 흡연 시 아이에게
피해갈 수 있음을 홍보

흡연 부스 조성

흡연 구역을 실내화하고
설치 간격을 줄여
길거리 흡연 자체 유도

흡연 구역 표시

양육자가 피할 수 있도록
흡연 구역을 지도에 표시

[그림 6-2] 물리적 개선 방안 제언

1) 유아차 친화 공간 조성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을 1.5m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관리 지침이 변경되었지만(국토교통부, 2018.07.26.), 현장 조사 결과 여전히 유효 폭이 1.5m가 되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 또한 중간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유효 폭이 줄어들거나 인도 중간중간에 오토바이가 주차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구간이 갑자기 나타나면 연구 참여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했는데, 아기를 태운 유아차 무게 때문이기도 했고, 인도의 높이 때문에 바로 차도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차를 끌고 이런 구간을 통과하는 게 어려워 그냥 처음부터 차도로 다닌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행태는 아기와 양육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기에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현장 조사를 통해 유효 폭이 1.5m가 되지 않은 구간과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차도 폭이 넉넉한 구간의 인도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1.5m로 확대되 쌍둥이 유아차 사용 시 유아차 폭에 맞춰 유효 폭은 2.0m 이상으로 권장한다.

특히 일방통행 1차로이면서도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은 양방통행을 유발하기도 하기에 일방통행에 필요한 폭을 제외하고는 인도로 편입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인도를 차도와 같은 높이의 아스팔트 포장길로 만들고 차도와는 안전봉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인도 중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인도 개선 전]



[인도 개선 후]

[그림 6-3] 인도 개선 예시



[그림 6-4] 유아차 주차구역 설치 예시

이어 유아차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한다. 특히나 식당이나 카페 등 양육자가 자주 가는 곳 중에서 유아차와 함께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유아차를 외부에 그냥 두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둔 양육자도 마음이 불편하여 그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일반 식당들은 유아차 진입이 어렵고, 수유실이 없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양육자들은 대형 쇼핑몰 등 규모가 있는 건물에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양육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규모가 있는 건물은 여러 식당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아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수유실 공간도 좁아서 유아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에 수유실 앞에서는 필수로 설치하길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차를 이용하는 양육자를 위해 보행 신호를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대개 유아차를 이용하면 횡단보도 기점 근처에서 대기할 수 없고 인도 안쪽에 대기하는 경향을 보였고, 신호가 바뀌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연구 참여자에게 기존 보행 신호 시간은 짧게 느껴졌다. 구체적으로 4차선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어진 31초는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촉박한 시간이었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통섬으로 이어져 있으면 교통섬까지의 거리를 신호 안에 건너야 하기에 시간이 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1\text{m}/\text{초} + 7\text{초}$) 계산에 인도 폭과 교통섬까지의 거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2) 육아 모임 공간 지원

육아 참여자들은 대개 육아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 기반으로 한 육아 모임은 대체로 1~2개 정도였으며, 그 모임은 주로 문화센터 수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개 문화센터 수강 날에 맞춰 1주일에 1~2번 정기적으로 만났으며, 문화센터 수업 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루틴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점차 카페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힘들어졌고, 모임 장소를 모임 내 다른 친구의 집으로 바꿨다. 그러나 늘 같은 공간에서 만나기에 활동이 제한적이며, 같은 공간에 대한 지루함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는 미안함을 느껴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집이 아닌 외부에서 육아 모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선 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을 육아 모임 공간으로 지

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미 공동육아방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보행 일상권에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양육자들이 선뜻 방문하기 어려울뿐더러 영아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양육자 혼자 놀다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주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특히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수 있는 강당 등의 공간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육아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대여해 주면 양육자들의 접근성도 증가할뿐더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장난감, 아기매트, 전자레인지, 정수기, 개수대 등 아이를 돌보기 위한 기본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영아도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길 제안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3년 내로 100곳, 2026년까지 400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키즈카페의 주요 타겟은 유아인 반면, 출산 직후 고립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기는 아이가 걷기 전까지일 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체험시켜 줄 것이 많지만 걷기 전까지의 기간에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음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문화센터 수업을 수강하려고 노력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실패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면서 걷기 전, 특히 기기 전의 아기를 돌보는 양육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양육자의 고립감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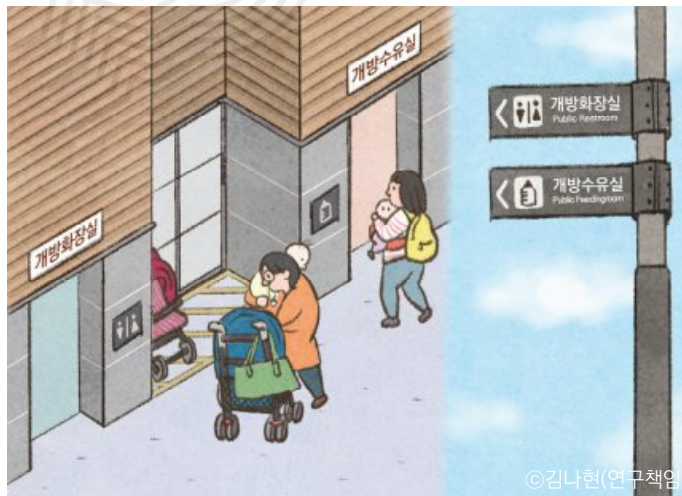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공공수유실 설치를 제안한다. 수유실의 부족과 낮은 질은 양육자가 외출했을 때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양육자들은 수유실이 있는 공간에만 가는 경향을 보였고, 그렇기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늘 똑같은 쇼핑몰만 반복해서 방문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수유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양육자는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유실을 전수조사하여 양육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 및 홍보하면 양육자의 공간 선택권이 확대되어 공간적 욕구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처럼 개방수유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아 모임 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 양육자의 공간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 후부터 임신부들은 공간 선택에 제한이 생기며, 특히 출산 후에는 자녀와 함께 외출해야 하기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공간을 방문하지 못하여, 공간의 시각적 욕구나 경험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공간적 욕구는 임신과 출산 후 다른 욕구로 전환되거나 소멸되지 않았고, 해소되지 않은 채로 연구 참여자 내면에 남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쁘게 잘 꾸며진 수유실’에서 그런 욕구를 작게나마 해소하고 있었으며, 최고 수유실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인테리어가 예쁘다’였다. 따라서 이런 공간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기능에 더해 디자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5] 행정복지센터 유희공간 대관사업 예시



[그림 6-6] 개방수유실 설치 예시

3) 흡연 공간 제한

길거리 흡연자들은 양육자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다. 출산 후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상승한 양육자에게 길거리 흡연자들은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재 날림, 화상 등 다양한 걱정을 해야 하는 요소였다. 또한 금연지역 지정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카페나 편의점 앞이면 어김없이 근처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웠고, 금연 구역이라고 잘 보이게 쓰여 있는 곳에서도, 공원에서도 무리 지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길거리 흡연 및 금연지역 흡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내 흡연 부스를 조성하여 양육자가 우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연구역은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양육자가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제안한다.



[그림 6-7] 흡연실 설치 예시

3_주 양육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행정적 개선

행정적으로도 개선할 점이 많았지만, 본 연구 결과 주 양육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주 양육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구해 아기를 맡기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동육아를 한다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힘든 방법이었다. 우선 베이비시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이사 가야 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긴다. 또 연구 참여자의 남편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공동육아가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직접 받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주 양육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행정적 개선



[그림 6-8] 행정적 개선 방안 제안

1) 임신부 및 주 양육자 유연근무제 확대

현재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그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신 중 모든 기간에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주 양육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여 주 양육자일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와 같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길 제안한다.

단축 근무 제도와 더불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체 변화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뿐더러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등 평상시보다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그럴 때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지만, 그만큼 자신의 자유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에 따른 아쉬움은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임신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시간과 장소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가능했다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시도한 회사들이 많았던 만큼 현시점에 그 장단점을 가려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2) 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주 양육자도 때때로 병원이나 은행 등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보통은 아기와 동행하지만, 병원 등 아기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특히 사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연구 참여자는 회의에 아기를 동행할 수 없어서 난감한 경험이 있었다.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기가 6개월 전이어서 불과 며칠 차이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 요건인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길 제안한다. 3개월인 이유는 출산휴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100일 전후로 연구 참여자의 양육 행태가 전환되어 아기를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것도 양육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6개월 이상의 아기를 양육하는 연구 참여자 모두 문화센터 수강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집 밖에 나가서 할 만한 게 문화센터 수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그 이전의 아기는 문화센터 수업도 다양하지 않다. 그렇기에 아기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드물었다. 이에 중장년층에 집중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영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길 제안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산후 지병 등의 이유로 외출할 수 없는 주 양육자를 위해 영유아 방문 놀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길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 참여자가 장난감 대여소에서 영유아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용해 본 참여자는 극히 드물었다. 이용해 본 참여자조차 1~2번 이용 후 이용을 안 하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장난감 대여소가 도보 생활권에 없기 때문이었다. 장난감 대여 기간이 1주일인 것도 이유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기와 단둘이 도보 생활권을 벗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부피가 큰 장난감까지 들고 1주일에 한 번씩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차로 이동한다고 해도 2주 연속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행 일상권에 장난감 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장난감 대여소에 배송 및 수거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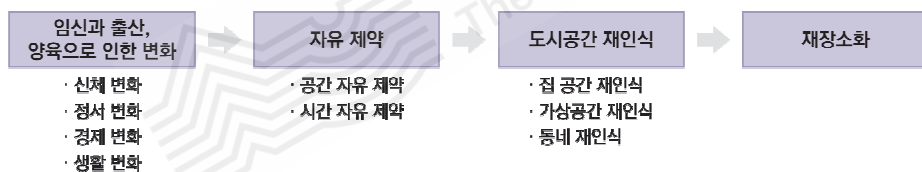
3)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플랫폼 조성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각 자치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는 정보가 산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사랑 내에는 굵직한 정보는 있지만 자치단체별 정보가 부족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공통적인 내용 위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결국 각 지자체 사이트로 한 번 더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민간 정보는 또 각각 찾아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공공 및 민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조성하길 제안한다. 공공 정책을 위주로 플랫폼을 구축하되, 민간기업에서도 운영 사업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보가 산발적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신기에 관련 정책을 공부했어도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정책을 공부해야 하는데 육아와 병행이 어려워 주변에서 알려주거나 정말 필요할 때 검색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원스톱 플랫폼에 월령별 정보를 구축한 후, 희망 산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기의 성장에 맞춰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구독제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현재 10개월인 아기에게는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 중 현재 적용되는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희망자에게 문자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원스톱 플랫폼의 알림으로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0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및 등촌동 일대에 거주 중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가 재장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을 거치며 여러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그 제약은 도시공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자신에게 중요한 장소가 바뀌고 궁극적으로 동네의 의미가 바뀌는 재장소화 과정을 거쳤다. 이때 과거 자신에게 중요했던 장소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맘카페 등 가상장소의 중요성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임신 전에는 스스로 의지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이다.



[그림 7-1] 재장소화 과정 요약

재장소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임신부와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회임을 몸소 경험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집 때문에 집이 좁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집도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첫째 아이 시기의 이런 경험은 둘째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을뿐더러 서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고, 서울 외 경기나 인천으로의 주거 이동을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나 인천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넓은 평형의 비교적 저렴한 공원형 아파트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서울의 지속가능성은 악화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그 패턴이 매우 유사했다. 우선 공통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불안과 고립, 우울을 경험했으며, 초반에는 맘카페에 의지하며 그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내 가상 장소에서는 고립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상 장소를 기반으로 현실 만남을 추진하여 육아 모임을 만들어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육아 모임을 통해 동네를 자주 오가며 동네를 다시 인식하고 되었다. 이때 동네를 자주 경험할수록 단점에 대한 인식도 커졌지만, 그만큼 애착도 더 커졌으며, 임신과 출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주거 이동 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공통으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 문제 영역으로 끌고 와서 사회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나 개인주의의 심화와 함께 출산이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임신부와 산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개인의 선택이 되어, 임신부와 산모가 고립되는 것 또한 개인 선택의 결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임신부와 산모가 체념하게 만들어 우선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완화하여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공격적인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온화한 접근이 필요하다.⁷⁾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분석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더 현장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으며, 세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지역과 개인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동시에 표본 크기를 키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에 기반한 연구가 후속되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공간의 조건을 기준으로 도시공간 내에서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더 많아져야 주 양육자의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공간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분포가 주 양육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7) 최근 호평을 받은 “2023 TVCF 문명의 충돌2 신문명의 출현” 광고와 같이 육아 현장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으면서 동시에 마음 아팠던 것은 ‘아기를 낳아서 정말 행복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나를 잃을 줄 알았다면 그 행복을 몰라도 되었을 것 같다’라는 한 연구 참여자의 소감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결과를 바로 보여준다.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연구 참여자조차 심층 면담 시 눈물을 보였고, 이전의 삶을 돌아갈 수 없는 아득한 옛날로 여기며 착잡하거나 씁쓸해하기도 했다. 또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초인적으로 노력하느라 지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본 연구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엄마’로서가 아닌, ‘나’로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 박찬효, 2015,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보행자의 존재성과 도시 공간의 재장소화 양상”, 『현대소설 연구』, 60, 259~293, 한국현대소설학회
- 전상인, 2014, “행복에 대한 공간사회학적 성찰”, 『문화와 사회』, 16, 11~44, 한국문화사회학회
- 전성제 외, 2019,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 전영국, 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25(1), 147~168, 한국열린교육학회.
- 최종환, 2014, “재일조선인 문학에 나타난 ‘배앗간 들’의 장소성”, 『한중인문학연구』, 43, 175~198, 한중인문학회
- 에드워드 렐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20,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이-푸 투안, 2020, 「공간과 장소」, 사이
- 국토교통부. (2018.07.26.).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통계청. (2022.12.12.).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_____. (2023.08.30.).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 김도영. (2015). 82년생 김지영 [Film]. 봄바람영화사.
- 김지수·최윤희·윤수민. (2020). 산후조리원 [TV series]. tvN.
- 유송이. (2022). 며느라기2...ing [TV series]. KaKaoTV.
- <https://youtu.be/-PiJIB3JJ9Y?si=ZPFq-Os5qV4PxJqN>([NEW!! ★스위첸] 2023 TVCF 문명의 충돌2 신문명의 출현)
- <https://schoolzone.emac.kr/>(학구도 안내 서비스)

작은연구 좋은서울 23-02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재장소화 과정 분석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